

IT839 결실 맺도록 IT수출 사령탑 역할에 최선

김선배 전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가 지난달 1일자로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제2대 원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앞으로 ICA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원장은 금융·건설·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고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글 권경희 기자·사진 이혜성 기자



“**민**간부문의 비즈니스·서비스 마인드, 정부 산하단체의 책임감 등을 접목시켜 공공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초 2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원장으로 취임한 김선배 원장은 지난 30년간 금융, 건설, IT업계 CEO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이사장 등의 다양한 경험을 ICA 경영에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통부와의 ‘코드’ 를 강조했다. IT839가 한국 IT정책의 브랜드가 된 이상 이를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ICA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증재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ICA는 정통부와 최대한 행보를 맞추겠습니다. IT839 전략은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단계입니다. IT839 정책의 결실은 보다 많은 수출에서 나올 것입니다. IT839를 세계적인 IT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서 “IT 제품 수출을 증대하고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IT 기업의 R&D 센터 및 해외투자 유치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ICA가 IT수출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A는 현재 법정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현안이 있다.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ICA를 법정 법인화하려 했으나 정기국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내 실패했다. 그럼에도, ICA가 차지하는 역할은 커졌다. IT수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ICA를 법정 법인화해 제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위상과 역할에 어울린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아이파크(iPark)와 통합,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서의 승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ICA 조직의 통합과 승격을 직접 언급하기에 조심스럽다”라면서도 “ICA가 법정 법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해보니 ICA 조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기를 높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ICA에 몸담고 있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능력을 발휘하도록 독

려하겠습니다.” 김원장은 또한 “한국 IT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ICA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센터가 IT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선배 원장과의 일문일답.

IT839 전략의 달성 및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의 주역으로서 ICA의 역할 및 과제는.

한국 IT정책의 브랜드가 된 IT839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IT839 정책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활성화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기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IT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만든 전략이다. IT839전략 달성의 핵심은 해외진출에 있으며 IT839를 세계적인 IT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에 있어서도 IT분야가 주는 기대치는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80년대 TDX 전전자교환기 개발성공, 90년대의 CDMA 신화창조에 이어 2000년대 초고속인터넷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그 결과 IT 산업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 공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IT분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IC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IT 839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우수한 중소기업 솔루션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수출 활로 개척에 매진하겠다. IT 제품 수출을 증대하고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며 글로벌 IT 기업의 R&D 센터 및 해외투자 유치에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ICA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5년 해외 수출지원, 기업투자 유치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센터에서는 올해 IT협력단 파견, IT839 해외마케팅지원, IT비즈니스 교류회 등을 통해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pre-marketing 단계부터 post-marketing 단계까지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화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초 하에 지난 5월까지 중남미·서유럽·일본에 IT협력단을 파견하고 바이어초청 상담회를 개최, 총 157개사가 참여하고 3,445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동유럽, 대양주, 인도·태국, 아프리카, 남유럽 등 세계 각지에 IT협력단을 파견,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IT839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를 도와 지난 2월 독일 DMB로드쇼, 6월 페루 DMB로드쇼와 한국·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 개최를 통해 IT KOREA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실시하여 국내 IT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국내 IT기업들과 홍콩 측 투자자 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에는 뉴욕과 런던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IT업계의 2005년도 수출실적 전망은.

전세계 IT 경기의 저성장과 더불어 2005년 우리나라의 IT산업 수출은 환율인하, 대미수출 급감, 제품가격 하락 등의 불리한 대외 여건을 맞고 있다. 우리 IT 제품은 세계적인 브랜드·기술우위로 가격주도권을 확보해 환율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겠지만, 수출 채산성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감소 등 일부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IT 수출 품목인 반도체, LCD 등이 가격하락으로 수출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 우려가 높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가격·환율·유가의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동유럽·인도 등 신흥IT시장 수출증가로 인한 수출성장세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004년 상반기 60%에 달했던 전년동기대비 IT수출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에 10%대로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의 IT수출 실적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IT수출지역과 품목의 다변화와 관련해 성과와 해결과제는.

우리나라 IT 산업 수출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수출 주요국인 중국·미국·일본 등으로의 IT 수출이 전체 IT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5.8%에서 2004년 54.5%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편중은 여전히 높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IT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최근 EU·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실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003년 15.1%(EU), 2.8%(중남미)에서 2004년 16.9%(EU), 3.2%(중남미)로 증가했으며, 중국·미국·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수출 편중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IT 품목별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IT 산업 수출은 품목별로 반도체·휴대폰·평판디스플레이 등의 3인방이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수출이 전체 IT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1.9%에서 2004년 76.3%로 품목별 수출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TV·셋톱박스·DVR·MP3 플레이어 등이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ICA의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한·중·일 IT장관회의, 2005 APEC 정상회의의 IT-KOREA홍보, 제32차 APEC 정보통신회의(TEL) 개최, 남북 IT 교류·협력 촉진사업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다. ICA의 주된 사업목표인 ‘IT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유망수출 IT기업과 제품을 평가, 발굴하고 분명한 해외 IT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ICA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CA의 사업성과와 책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시스템(BSC)을 도입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ICA가 국내 IT수출 기업의 해외진출 참여역할과 IT839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수행하는 IT수출 및 국제협력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